

나홀로 교인이 우리교회로 돌아오는 길



한국 교회 교인이 줄어들었다는 통계가 나오면서 '1200만 성도', '1000만 성도'라고 호기롭게 외치던 소리가 사라져 버렸다. 교인들이 줄어든 이유를 분석한 글들도 많이 발표되었다. 줄어든 원인을 밝히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교회를 떠난 이들이 어디로 갔고, 그들을 어떻게 돌아오게 할 것인가를 알아내는 일이다.

교회를 떠난 사람들은 어디로 갔을까. 사석에서 종교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면 “부모가 불교여서 일 년에 한두 번 절에 간다”, “천주교인인데 냉담자다. 고해성사를 안 받으니까 벌써 10년 되었다”는 사람이 많았다. 기독교인들은 “주일 낮 예배만 겨우 나간다”며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교회에 간다는 걸 강조했다.

그런데 요즘은 달라졌다. 종교 얘기를 하다 보면 “기독교인인데 교회는 안 나간다. 그냥 혼자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유난히 많다. 이유도 다양하다. 바빠서, 교회에 환멸을 느껴서, 실망스러운 교인이 있어서, 목사가 싫어서 등등.

‘나홀로 교인’이 많아진 가장 큰 이유는 ‘인터넷 예배’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라는 게 나의 생각이다. 천주교 1개, 불교 2개에 비해 기독교 TV채널은 5개나 된다. 대낮이든 한밤중이든 틀기만 하면 목사들이 친절하게 설교를 하고 있다. 휴대전화에 앱을 깔면 유명교회 설교도 어디서든 들을 수 있다.

우리 어머니는 30여 년간 매주 한 번 경남에서 가장 큰 기도원에 다니셨다. 1-2시간 거리의 인근 여러 도시로 기도원 셔틀버스가 운행되었는데, 예전에는 대형 버스 몇 대가 꽉꽉 찼다고 한다. 그런데 벌써 오래전부터 울산과 기도원을 오가는 셔틀버스가 한 대로 줄었고, 그나마도 큰 버스에 대여섯명만 탄다고 한다. 자리를 잡기 힘들 정도로 넘쳐나던 대성전은 휴가철에나 문을 열고, 매주 몇십 명의 사람들이 작은 성전에서 예배드린다고 한다. 왜 그렇게 사람이 줄었는지 묻자 어머니가 납득할 만한 대답을 해주었다.

“사람들이 기도를 덜하기도 하겠지만 기도원에 가야

만 볼 수 있던 유명한 목사님이 TV만 틀면 나오니까 사람들이 가지 않는 거다.”

나홀로 교인이 많아진 건 우리 교회가 아닌 하나님 이 중요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우리 교회가 끼치는 불편함은 싫지만 예배는 드리고 싶다는 것이 나홀로 교인들의 바람인지도 모른다.

그런가 하면 ‘우리 교회’를 정하지 않는 일명 교회 쇼 핑족들도 많다. 출석교회를 못 정해서 두루두루 다녀 보는 경우도 있지만 딱히 우리 교회를 정하지 않고 마음 내키는대로 교회에 다니는 이들도 있다.

두세 군데 교회를 다니는 이들도 적지 않다. 교회 건물은 움직이지 않지만 교인들은 수시로 이사를 다니다 보니 주일예배는 등록된 ‘우리 교회’에 가고 새벽 예배나 수요일예배, 금요기도회는 동네 교회로 가게 되는 것이다.

남의 교회에 갈 때 가장 불편한 사항이 “우리 교회에 등록하라”는 권유이다. 평일에 다른 교회 예배에 갔다가 ‘눈치 보여서’ 아예 주중예배를 결석하는 이들도 있다. 그런 일이 되풀이되어 인터넷 신세를 지다 보면 어느덧 나홀로 교인으로 굳어지고 만다.

‘우리 교회’에 대한 개념이 점점 희박해지지만 목사님들은 “반드시 교회에 등록해야 한다. 모이기를 힘쓰라고 했다”를 강조하며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다. 이런 일을 한다. 함께 모이니 이런 힘이 생긴다”고 강조한다. 또 많은 목사님이 록펠러의 어머니가 남긴 유언이라며 “반드시 등록교회에 출석하여 맨 앞자리에 앉아라”는 예화를 들려준다.


목사님들이 힘주어 강조해도 ‘우리 교회’에 대한 개념은 더욱 흐려질 거라고 본다. 진학이나 취업, 전근 때문에 본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교회를 정하지 않고 몇 달, 혹은 몇 년씩 방황하는 일도 많다. 두고 온 우리

교회가 엄연히 있는 마당에 또다른 ‘건고한 우리 교회’에 갇히게 될까 우려하기 때문이다.

교인들의 구성비를 보면 젊은층이 절대적으로 적다. 유년주일학교를 운영하지 않는 교회가 50%를 넘는다는 충격적인 결과도 나왔다. 스마트폰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젊은이들에게 ‘우리 교회’라는 울타리가 갑갑하게 느껴지기 때문일 것이다. 더 재미있는 것, 더 이득이 되는 것이 넘쳐나고 있으니 말이다.

요즘 멘토링 프로그램이 활성화되면서 교회 선생님이 해 주던 역할을 사회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대신 해주고 있다. 지난 1년 동안 대통령직속청년위원회 멘토링 프로그램 ‘더청춘’의 멘토로 활동하면서 바쁜 대한민국 사람들이 후배들을 위해 열심히 달리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 올해는 한국장학재단 6기 멘토링 프로그램의 나눔지기로 활동하고 있는데 여섯 명의 배움지기와 1년 동안 만나는 프로그램이다. 한 달에 한번 배움지기들을 만나 나의 전문성을 그들에게 전수하고 그들은 개인적으로 나에게 고민을 털어놓는다. 요즘 젊은 친구들은 고민은 멘토링으로 해결하고 다양한 지원책을 활용해 여러 시도를 하며 글로벌하게 산다.

‘우리 교회’를 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시대, 아예 교회에 관심없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세상이다. 점점 화려하고 편리해지는 세상에서 목적 없이 살아가는 이들을 위해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 교회의 고리를 푸는 것이다.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교회, 여러 교회를 다녀도 다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 되는 것이다. 우리만의 완고한 교회가 아닌,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집이 되면 나홀로 교인들도 슬슬 돌아올 것이다. 



이근미 소설가, 미래한국 편집위원이다. 문화일보 신춘문예, 여성동아 장편공모 당선하였다. 저서로는 장편소설 「17세」, 「어쩌면 후르츠 캔디」, 「서른아홉 아빠에인 열다섯 아빠딸」, 「나의 아름다운 첫학기」, 비소설 「대한민국 최고들은 왜 잘하는 것에 미쳤을까」, 「프리랜서처럼 일하라」 외 다수가 있다.